

자동차

Car

중고차는 장마철에 사라

본격 휴가철 수요 앞두고 매물 쏟아져 자금회전 어려운 업체들도 싸게 내놔

장마철은 중고차를 사기에 최적의 시기로 꼽힌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매물이 많은 반면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상대적으로 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마철은 봄철 성수기인 5월이나 여름 성수기인 7~8월 사이에 끼어 있어 업체들이 자금회전을 위해 낮은 가격에 차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매매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라면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중고차 구매요령=매매업체를 찾을 경우 발품을 팔아 천차만별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원하는 몇 개 차종을 생각한 뒤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2~3개 업체에 전화하거나 중개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살펴보는 것도 중고차 구매의 기본 요령이다.

또 차를 구입할 때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받아줘야 문제 차를 사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1개월 또는 2천km까지 중고차

車 기록부 받아줘야 법적 보상 가능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사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 중인 자동차이력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사고자라고 무작정 겁낼 필요는 없다. 특히 성능에 큰 지장이 없는 범퍼에 사고가 났거나 렌더 도어 트렁크가 교체된 정도라면 차 운행에 별 지장이 무사고차보다 싼 값에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날씨가 굿으면 외부 패널의 교환이나 수리상태, 제도장 및 도장의 불균일성, 용접 여부 및 흡집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흐릴 땐 실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차를 옮긴 뒤 차체의 물기를 닦고 불빛 아래에서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비오는 날은 가급적 시승을 피하는 게 좋다. 차 내부에 습기가 많아져 엔진·변속기 작동시 발생하는 이상을, 가속 및 감속할 때나 요철도로를 주행할 때 들리는 차체 진

동음 등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할부로 목돈 부담 해결=중고차 구입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라면 중고차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들이 각종 혜택을 앞세워 중고차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차 가격 급등으로 인해 출고 2~3년 된 인기차종의 중고값도 높은 가격대에 호가가 형성되면서 중고차 할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중고차 할부시장의 총 규모는 5천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900억원보다 97%(2천800억원) 증가했다. 또 전체 중고차시장 가운데 할부 이용율이 올 1~4분기들어 30%대

구입자금 할부 이용 큰 부담 없어

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연간 중고차 할부 취급실적도 1조6천6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사와 카드사들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오토플러스중고차 할부'는 중고차 보장서비스 기간이 건설교통부가 정한 품질보증기간보다 훨씬 긴 5개월·5천km로 정했다.

보증기간에 구입한 차량의 엔진이나 미션, 타이밍벨트에 이상이 생겼을 때 5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견적에 상관없이 수리 또는 교환해 준다. 금리는 연 12.9~26%에,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다.

대우캐피탈은 연 12~24% 금리의 중고차 할부상품을 판매 중이다. 신용등급 1~2등급 고객에겐 10~13%의 이자를 받고,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금리를 2%포인트 추가 할인해 준다.

쌍용캐피탈은 금리가 연 15.5~26%, 최고한도 3천만원의 중고차할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도가 좋은 우량고객에게는 금리가 약간 높지만 수수료가 없던 상품도 판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3%이며, 연체 이율은 29%이다.

삼성카드도 최저 1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최고한도 2천500만원, 연 12.5~27% 금리의 중고차할부 상품을 판매 중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6개월, 3.3~11.8%의 수수료를 먼저 내면, 3·6·9·12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할부금은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G카드의 중고차 할부금리는 연 11.9~26%. 중고차 포털사이트인 SK엔카와 제휴해 자동차구입대금, 보험료 등 중고차 구입자금을 한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



기름값 올라도 외제차는 늘어

등록대수 2년간 60%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외제차의 등록대수는 급증한 반면 소형차와 경차 등록대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제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외제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 2년간 60%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외제승용차 등록대수는 17만8천979대로 2004년 11만2천237대보다 2년 새 59.4% 증가했다.

이같은 외제차의 증가세는 국산차 등록대수가 올해 5월말 1천134만4천347대로 2년전 1천44만1천468대에 비해 8.6% 증가한데 그친 것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외제승용차는 올들어서도 3월말 17만1천536대에서 4월말 17만5천12대, 5월말 17만8천979대 등으로 매달 3천500~4천대가 새로 등록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마철 자동차 관리요령

긫은 날씨는 차량을 피곤하게 만든다. 특히 장마철의 경우 각종 사고 및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근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하지만 장마철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미리 차를 점검하는 한편 자차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사고 위험과 자동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타이어·윈도 와이퍼 점검 필수=장마철에는 타이어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빗길에서 물 위를 떠다니는 듯한 '수막현상'을 일으켜 제동력이

타이어 마모 심할땐 반드시 교체해야 자차보험 가입 침수피해 보상 대비를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이어 마모 여부를 검사한 후 이상이 있다면 교환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겨울철에 사용하는 스노 타이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대형 타이어 할인매장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시중 가격보다 5~10%가

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운전자의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윈도 와이퍼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단 윈도 와이퍼를 직접 작동시켜 보고 전면 유리가 깨끗이 닦이지 않으면 교환을 해야 한다.

유리 세정액(워셔액)도 여분을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빗길 운행 중에 유리 세정액

이 떨어지면 흙탕물로 인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장마철에는 빗물뿐 아니라 안개도 잦다는 점에서 제동등, 안개등, 전조등과 같은 각종 등화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자차보험 가입해야 침수 피해 보상=장마철 침수된 차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 가운데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운행이나 주차중 여부와 관계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를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상되며 자차보험 가입때 정해놓은 차량 가격 한도에서 이

뤄진다.

그러나 차 실내나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총물, 화재 피해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게 좋다.

자차 보험료는 추가 가입일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계산해서 내면 된다. 장마철이 끝나고 자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가리키며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물이 들어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이제 남편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남편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남편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060-700-3658

마시면 쏘~옥 빠지는 프랑스 커피

마시면 쏘~옥 빠지는 프랑스 커피

프랑스 커피

02-335-6801